# 사회과학잡지 '외면' 딛고 '대중화'의 길로

## 특집 – 사회과학 잡지출판물의 현황을 진단한다

사회과학 잡지 출판계가 현재 자금난과 판매부진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출판사는 그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변화의 몸부림 치고는 있지만 독자와의 한번 멀어진 사이를 좁히는데는 아직 거리가 있는 느낌이다.

이글은 출판계의 현황과 속사정을 알아봄으로써 월간, 계간지를 직접 접하고 있는 독자들이 좀더 쉽고 폭넓게 사회과학 잡지를 접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註〉

### Ⅰ. 사회과학 출판계의 현주소

오늘의 사회과학 출판계는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다. 예전과는 다른 독자들의 냉담한 반응, 서점들의 홀대, 그에 따른 판매부수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과학 출판사들로 하여금 엄청난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출판계를 풍미했던 '사회과학 도서의 과잉'은 그리운 옛시절이 되어버렸고 오늘에 와서는 개개 출판사들의 존폐위기를 얘기하기에 이르렀다. 발만 동동 구르고 안타까와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사회현실과 출판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실 조금의 관심만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회과학 출판사들의 힘든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발원하고 동·서독의 통일과 동구개혁을 거쳐 지난 8월 소련의 쿠데타로 막을 내린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혼돈을 초래케했다.

자성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에 앞서 이데올로기 불감증,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이 만연하게 되었고, 다시 그것은 그대로 사회과학출판계로 돌아왔다. 이념서적과 학술연구도서의 판매량이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과학 출판사들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진로모색과 자구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자회사를 차려 일반서적을 출간하는가 하면 아예 대중출판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아동용 도서로 주종을 바꾸는 데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혼돈속에서도 우리와 가장 친숙하고 우리 운동의 생산적 논의를 담아왔던 계간지나, 월간지, 부정기 간행물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축적하며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Ⅱ. 사회과학 출판계의 잡지현황

1. 계간지

1980년대 중반까지 우후죽순격으로 발간되었던 Mook(부정기간행물)는 당시의 사회상황을 기동성 있게 담아 내었으나 점차 성격을 분명히 하는 계간지 시대로 옮아 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성과, 특히 학술 운동이 집단화·조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사회과학 출판계의 대표적인 계간지는 〈표1〉과 같다.

사실 〈표1〉에 소개한 계간지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읽었을 사회과학출판계의 얼굴들이다. 그러나 계간지를 내고 있는 각 출판사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단히 힘겹게 꾸려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창작과 비평'과 '현실과 과학'을 빼고 나면 매호당 많게는 1천만원에서 작게는 3백만원의 손해를 봐 가면서 계간지를 발간하고 있다. 영세규모의 사업장에서 그만한 손해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비록 '사상문예운동'이 올 가을호를 끝으로 휴지기에 들어 갔으나 나머지 계간지들은 어려운 사정속에서도 꾸준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계간지는 아니라 계간지의 호흡으로 나오고 있는 석탑의 '새벽'과 백민의 '청년'도 눈여겨 볼만하다. 88년 5월에 창간되어 현재 통권 10호를 기록하고 있는 '새벽'은 노조간부나 노동활동가를 대상으로 직장내의 민주토대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곧 계간지로 옮겨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청년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잡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올 8월에 창간호를 낸 백민의 '청년'은 선진적 청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지로서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출판계의 대표적인 계간지나 부정기간행물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출판물은 우리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튼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갈수록 시류에 편성한 상업출판이 범람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독자들의 성원만 보태진다면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월간지

한달에 한번 나오는 월간지는 사회과학출판계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영세성을 따져 볼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이나 사회과학 출판계에서 발간되는 월간지는 그 수가 적다.

〈표2〉에 나와 있는 사회과학 출판계의 월간지는 세 종 정도이다. 물론 사회과학 출판계와 거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말'지가 대중속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긴 하다. '출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월간지가 이 정도임은 사회과학 출판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 | 창간호 | 통권 | 발행부수 | 연구소 | 기획, 편집 방향 | 출판사 |
|---|---|---|---|---|---|---|
| 경제와 사회 | 88. 12 | 11호 | 2천 - 2천5백 | 한국산업사회연구소 | 〈한국산업사회연구소〉연구원들이 연구성과, 변혁이론의 다양한 실천적 분석현실적 앙산계론 | 이론과 실천 |
| 동향과 전망 | 89년 여름 | 13호 | 3천 - 3천5백 | 한국사회연구소 | 〈한국사회연구소〉연구원들의 연구성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변혁이론의 양산 | 백산서당 |
| 사상문예운동 | 89년 가을 | 9호 | 6천 - 7천 | 풀빛자체기획 | '주체적 변혁사상의 포착, 형성과 이의 이데올로기, 문화전선 및 대중적 실천활동 현장으로의 집중, 주령' | 풀빛 |
| 실천문학 | 88년 봄 | 23호 | 5천 | | 민족, 민주문학표방, 문학의 실천을 주된과제 | 실천문학사 |
| 역사비평 | 88년 여름 | 14호 | 5,000 | 역사문제연구소 | 역사연구의 대중화와 새로운 역사 인식의 정립 | 역사비평사 |
| 창작과 비평 | 1966년 | 73호 | 2만 - 2만5천 | | 민족, 민주 문학, 인문, 사회과학 | 창작과 비평사 |
| 현실과 과학 | 91년 여름 | 10호 | 5천 - 7천 | | 변혁운동의 과학화와 과학의 대중화 | 새길 |

〈표1〉 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에 부정기 간행물(Mook)로 출발하였다

### Ⅲ. 맺음말

그동안 사회과학출판계는지나칠 정도로 폐쇄적이었다. 사회과학서적은 운동권이 아니면 읽지 못할(!) 정도로 기득권화 되어 버렸고 일반 대중들의 접근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었다. 난해한 용어와 문장들로 짜집기 된 책을 과연 누가 읽겠는가. 어찌보면 오늘의 사회과학출판계의 현실은 스스로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다.

| | 창간호 | 통권 | 발행부수 | 기획, 편집 방향 | 출판사 |
|---|---|---|---|---|---|
| 길 | 91. 9 | 1호 | 1만 - 1만5천1 | 노동자대중의 중심에 둔 진보적 시사교양지 | 새길 |
| 사회평론 | 91. 5 | 7호 | 만5천 - 2만 |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 실천적대안모색 진보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의 민주적 변혁」에 무게중심 | 사회평론사 |
| 우리교육 | 90. 3 | 21호 | 1만5천 - 1만6천 | 교사나 교육연구가를 대상으로한 교육 전문잡지 | 우리교육 |

〈표2〉 길은 무크지로 창간호를 내었으나 바로 월간지로 옮겨갈 예정이다

앞에서도 잠깐 지적하였지만 '사상문예운동'이 올 가을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 '엄청난 물량의 시대에 계간지 하나조차 꾸리지 못하는 한심한 실림'을 탓하게 되고 대중들의 냉담한 반응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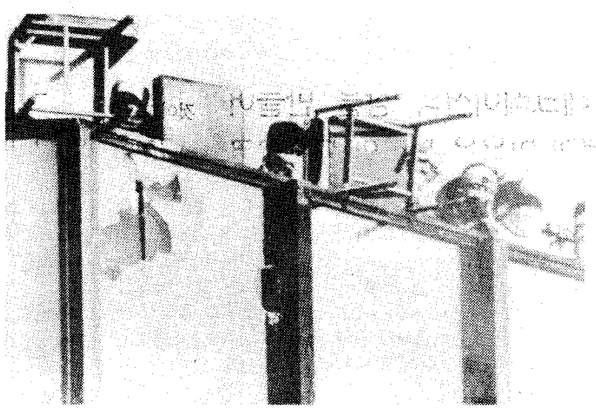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나온 우리 사회과학출판계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유연한 정신과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굳은 심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럴때야만이 사회과학출판계가 거듭나고 대중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독자들의 성원 또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박 강 호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 협의회 교선국장〉

## 경영난으로 상업화 등 다양한 진로 모색
## 독자적 편집방향 통한 체질개선 절실

## ▣ 10·28 건대항쟁 5주년 맞아

# 66시간 50분간의 투쟁



◇ 10. 28 건대항쟁은 '단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86년 10월28일 건국대에서는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이하 애학투련)'발족이 있었고 이에따른 경찰의 학원침탈로 학생들이 학교건물로 피신하였다.

3박4일간의 투쟁 끝에 1천2백19명이라는 사상유례없는 구속자를 낳으면서 건대항쟁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건대항쟁은 애학투련이 제시한 전국애국학도의 단체, 민주집중제의 원칙, 행동통일의 원칙, 분열을 초래하는 자세척결이라는 원칙등 이전의 소수 선도투쟁을 극복한 '단결'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무섭게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와 경찰의 마이크소리, 헬기에서 뿌리는 유인물 그리고 공산분자로 매도된 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대의 장안벌은 지금 10. 28기념 통일축전과 기념탑 건립의 열기로 가득차있다.

특히 올해에는 형식적인 기념행사, 계승사업회의 조직력 미비, 건대항쟁의 의의 및 성과 선전미비등 지금까지의 행사태도를 반성하고 10. 28에 대한 교양 교육으로부터 다양한 선전작업과 아울러 심포지움 및 10월에서 11월로 이어지는 정세분석, 학생회 강화투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 특집부 〉

데스크 칼럼

전 만 환
〈본보 편집장〉

# 물가인상의 볼모된 추곡수매가

農者天下之大本

지금은 장농속의 고서적이나 민속놀이의 만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 말은 최근 몇년동안 더욱 무색해지고 있다.

추곡수매가 일반미 7% 인상, 수매량 8백50만석.

너무나 허무한 신문기사를 보면서 풍성한 가을들녘을 버리고 아스팔트로 나서는 농민들의 한(恨)풀이가 이제 분노를 넘어서 절규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가을걷이때는 우는 아이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농촌에서 지난 25일은 황량하고 누런 들판만이 농촌현실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오죽했으면 널려있는 곡식을 팽개치고 유사이래 한번도 없었던 농민파업을 했을까. 일제의 식량수탈정책으로 곡식의 대부분을 빼앗겨야 했던 일제시대에도 '곡식을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는 미신 또는 종교처럼 여겼던 농심(農心)때문에 농사일을 버릴 수 없었던 농촌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번 수매가 결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장하는 일반벼 24%, 통일벼 10.6% 인상, 전량수매는 고사하고 친정부적인 농협이 요구한 일반벼 15%, 통일벼 10%, 1천만섬 이상 수매에도 턱없이 못미친다.

소위 정부는 내년 주요 선거들에서 '여당의 표밭'이었던 농촌을 의식하면서도 이런 위험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정부는 그들이 농업 정책입안에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아왔던 '양곡유통위원회'의 일반벼 9.5~10.5%, 8백50만섬~9백50만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매가와 수매량을 정했다.

## 수입쌀에 무너진 農心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반대가 거셀 것을 의식,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국회동의를 받아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국회에서 밀어 붙이기·날치기를 통해 '합법적'절차를 거칠 것이다. 정부 5%, 여당 10%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양 저울질하면서도 허울좋은 '당·정협의' 결과 7%이상 양보할 수 없었나 보다.

한편 코앞에 바짝 다가선 쌀 수입개방에 대비해 개방을 한다, 안한다로 우왕좌왕하면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통해 농촌을 탈농화, 기업농화해오던 정부가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기가 온 것일까. 1년, 2년 미루더라도 언젠가는 쌀수입 개방에 대한 반발에 부딪힐 걸 '매도 먼저 맞자'는 각오로 임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수매가 책정 이유로는 재고쌀때문에 수매량을 더 늘일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그들이 지난 84년이후 2천여톤을 수입한 쌀때문이며, 경제정책 실패가 이미 만들어 놓은 물가인상, 권력과 독점자본을 살지우기 위해 다 써버린 예산부족 때문에 더 이상 수매가 인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에 비해 공산품인 농기계와 비료값, 인건비등은 물가인상율만큼 올라가는데도 그 비용만큼 생산비가 더 들어간 쌀값은 매년 물가인상의 볼모가 되어 제자리 걸음만 해야 하는가.

'개미와 베짱이'의 얘기를 믿고 살았던 모든 '개미'들에게 이 동화는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베짱이처럼 '놀고 먹는'사람들이 왜곡된 자본흐름을 이용해 수천억을 벌고 몇백억을 탈세하더라도 7백만명을 위해 몇천억이 없어야 하는 현실,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땅의 모든 개미가 미련해빠지고 잘 못사는 이유가 여러분의 과소비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오늘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추곡수매가 산출이다.

3만원짜리 미국쌀을 먹으면 생활비 절약되고 수입개방압력 완충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농촌이 다 폐허가 되고 기업농이 들어서면 미·캐나다·호주와 비교해 농·수산물 경쟁력이 생긴다는 근거가 있는가. 곡물이 국제무기화될 때 정책당국자는 잡초라도 캐먹을 용의가 있는가.

이미 70년대부터 저곡가는 저임금과 시이소오를 타듯 오르락내리락한 것 또한 사실이다.

올해초부터 국회의원 외유, 한보 특혜, 지자제 금품선거, 인플레 등 경제정책의 파행을 알기에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 이런 것이나마 없고 수입자유화는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믿어주고 싶다. 그러나 요 몇년동안 국제수지 흑자 빛을 좀 보았다고 선진국입네 떠들던 그들의 허구가 역으로 국제무역 적자와 탈수입보호국에서 제외된 영광이기에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한 집안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며 국가의 살림이 어렵다고 정부가 말하더라도 이제 믿을 사람은 없다. 늑대와 거짓말장이 소년의 얘기를 몇십번, 몇백번이나 속고 더 속아 넘어갈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첨단 자동차기술의 무결점주의에 도전하는 테스트 드라이버 –
자동차 한국의 명예를 빛낸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

어떤 상황에서도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는 첨단 자동차 기술을 향한 끝없는 집념 – 현대자동차는 한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무수한 시험과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칩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해 첨단 자동차 기술을 꽃피워 가는 자동차의 전문 조련사들 –

이들이 바로 완벽한 자동차 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혹독한 지옥훈련 속에 꽃피는 첨단 자동차기술

새로운 자동차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훈련코스가 있습니다.

지구 100여 바퀴(400만 km)를 달리며 차량의 성능, 마모정도를 측정하고 섭씨 40도의 폭염과 영하 45도의 혹한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 인공으로 만든 폭우가 쏟아지는 악조건하에서 엔진이상유무, 밀폐성 시험, 와이퍼의 작동 성능과 충돌테스트, 도로주행시 차량이 받는 물리적 현상인 노면재현 시험코스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들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시험을 통해 자동차의 무결점주의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를 만들어야 한다

보다 나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자부심으로 첨단 자동차기술에 도전하는 사람들 – 오늘도 세계 제 1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고통과 실패는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의 학창생활이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날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오늘의 정신으로 내일에 도전한다

HD 現代自動車